

종교간 갈등, 우리는 어떤가

성중탁 / 변호사기자

대망의 2011. 1.월을 맞이하였다.

기독교 장로출신인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도 2년 밖에 남지 않았다.

현 정부 들어서 특히 불교와 기독교간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최근 서울 조계종 봉은사 내 기독교인들이 한 땅밟기 및 기독교 예배사건을 비롯하여, 울산광역시에서는 2012년 문을 여는 KTX 울산역사 명칭이 'KTX 울산역(통도사)'로 정해진 데 대해 지난해 지역 기독교계가 강력 반발하며 'KTX 울산역(통도사) 명칭폐기 울산기독교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들어, 이 같은 명칭이 특정 종교(불교)에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폐기를 요청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불교계는 "불교 폄하",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또한 전국에서 불교적 성향이 비교적 강하다는 대구 팔공산 불교테마공원 사업의 경우, 기독교계의 지속적 문제 제기 등으로 인해 전면 재조정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필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인간 내면을 탐구하고, 진리를 찾으며 중생과 하나님의 어린 양을 구원한다는 종교 본래의 모습을 심각하게 잃어버린 종교의 정치화 내지 욕심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간 갈등을 겪은 나라는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낳곤 하였다. 과거 유고슬라비아연방 붕괴시 기독교와 이슬람의 갈등으로 많은 국민이 학살된 세르비아 내전이 그렇고, 최근에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가 종교간 갈등으로 최대 위기상황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나이지리아사태의 경우, 서구 유럽 덴마크의 만평사건과 교사의 코란 압수사건 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몇 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나이지리아의 기독교 - 이슬람간의 갈등이 폭발한 것이다. 양측간의 갈등은 이미 폭동 수준으로 번져 양측이 서로에게 공격을 감행하여 2010년 10월 동안 15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슬람 신자들이 교회 11곳을 불지르고, 기독교인들이 경영하는 상점을 공격하여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기독교인들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23일 이슬람 사원을 공격하여 최소한 8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공격자들은 시신 수십 구를 불태우는 사건도 있었다. 나이지리아는 종교적으로도 이슬람 인구가 50% 기독교 인구가 40%를 차지할 정도로 분명한 주류 종교를 가리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정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와 불교간 주류 종교를 가리기가 어렵다. 그런데, 나이지리아에서 이렇게 종교간, 종족간 갈등이 심각해진 데에는 나이지리아 정치권이 한몫을 했다고 한다. 과거 나이지리아를 통치했던 사니 아바차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연장을 위한 지지세력 결집을 위해 지역갈등과 종교간의 적개심을 부추겼다. 그 결과로 1998년에 아바차가 사망한 뒤 남부의 기독교권의 요루바족과 이보족 대 아슬람 하우사족간의 내전이 발생하여 1

만명이나 사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올루세곤 오바산조 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내전 상황은 해소되었으나, 이번에는 북부의 12개 이슬람 주들이 샤리아법을 실정법으로 채택하고 이를 북부의 소수 기독교인들에게 강요하였고, 이에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반발하면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유혈충돌이 발생하여, 또다시 1만명 가량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상황이었는데, 그 후 정치권이 다시 종교를 정쟁에 활용함으로써 다소 잠잠하던 종교간의 갈등이 최근 다시 불거졌다는 것이다.

과거 우리 정치권은 지역감정을 기반으로 지금의 한반도 좌, 우지역으로 정치벨트를 형성하도록 만든 것 또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나이지리아의 종교간 갈등의 현실에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

지난해 연말 종교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심포지엄이 한국종교학회(류성민 회장) 주최로 12. 21.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한국종교학회는 "불교계와 개신교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종교간 이해로 다종교 사회에서 질서에 대한 인식을 높여 갈등 극복의 가능성을 찾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기독교와 불교, 그리고 이 밖에 대한민국 땅에 세워진 모든 종교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겸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문제에 있어 서로를 깎아내리려 하기보다는 먼저 서로 대화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함으로써 나라 발전과 화합에 기여하는 종교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때는 서로를 포용해주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던 그때를 상기하고 세계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만은 종교간 시비가 없는 나라란 이미지를 보여주길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맺는다.